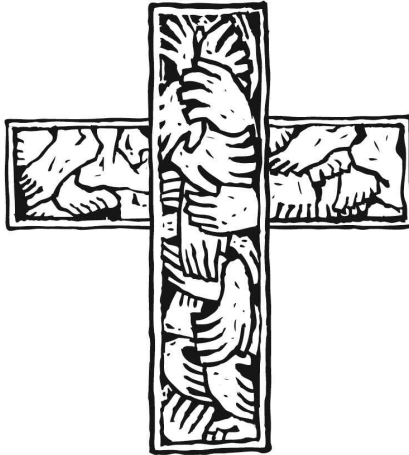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3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28.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창조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을 처음 만드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동지를 향해 가고 있고, 교회는 대림절의 빛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은총 가운데,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주님 보여 주시는 참된 길을 발견하며, 기쁘게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이 땅의 생명들을 지켜 주십시오. 고용불안, 저임금, 산업재해가 가시덤불이 되어 청년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맘몬의 노예가 되어 가시덤불을 방치하는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청년의 꿈이 우리 사회의 미래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눅1:78b-79 인도자

▲ 교 독 문 117. 구주 강림(3)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신진식 목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447. 이 세상 끝날까지 다 함께

▲ 성경봉독 렘 23:3-8 I. 인도자
II. 안미순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독자

다 함께

찬 양 I.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중물 찬양대
II. 주 찬양, 알렐루야 참빛 찬양대

말씀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 것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455.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애써 주님을 알아 가십시오. 힘써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함께: 아멘. 기다림의 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무지와 나태로 아둔해진 신앙의 영적 비만을 깨달습니다. 애쓰고 힘쓰며 신앙의 근력을 키우겠습니다.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낮 집회 / 설교 : 김기석 목사

■ 삶과 이야기 ■

모든 것이 아름답다

"엄마, 가을은 언제 끝나? 빨리 겨울이 오면 좋겠다." 다울이가 이토록 겨울을 기다리는 까닭은 뭘까? 바로 일하는 게 힘들어서다. 한동안(요 며칠은 더욱) 가을걷이가 정점에 다다라 다울이까지 최전선에서 활약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게 아주 죽을 맛인 모양이다. 도서관에서 빌려다 놓은 책을 얼른 읽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인데 다울이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울 아빠가 설 틈 없이 다울이를 불러 대니 말이다. "다울아, 고구마 손질해라!", "다 했으면 울타리콩 따서 까라.", "다울아, 땅콩 따자!", "이리 와서 완두콩 심어라!", "다울아, 굴뚝이 잡아다 닭 갖다 줘라."

그렇다. 다울이마저 이렇게나 바쁜 '전력질주'의 시간이다. 나 또한 애들 낮잠 잘 때 갖는 나만의 달콤한 휴식마저 반납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 고구마 줄기, 피마자 잎, 고춧잎 같은 거 데쳐서 말리고, 탕자 따서 씻고 썰어서 설탕에 재워 두고, 호박 썰어서 말리고, 아침저녁으로 이것저것 널고 거두고, 따 놓은 감 손질하고, 개밥 끓여서 주고, 땅콩 캐고, 고구마 분류해서 쟁이고, 시래기 삶고, 그러는 틈틈이 밥 준비하고, 빨래 널고, 간식거리 만들고.... 더 급한 일 덜 급한 일 나누어서 더 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하고, 더구나 나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다울이는 물론 다람이 다나한테까지 도와 달라고 손을 내민다... "다나야,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콩이랑 팥 좀 주워 줄래? 저쪽에 바가지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다람아, 바깥 아궁이에 불 좀 봐. 집게 줄 테니까 나무 떨어지면 집어서 넣고 냄비에서 김 나오면 엄마한테 알려 줘!"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한테 도움을 청하다가, 문득 이번 가을이 지난해 가을과는 또 사뭇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됐다. 뭐랄까, 아이들과 나 사이에 '동지애'가 깊어진 느낌이랄까? 일을 같이 해야만 나눌 수 있는 속 깊은 정과 마음의 마주침을 전보다 진하게 경험하고 있달까?

다울 아빠가 풋팥(덜 여문 팥) 한 바구니를 부엌 바닥에 쏟아 놓고 나갔다. 다울이에게 떨어진 작업 명령은 오늘 내로 이 팥을 다 까라는 것! 다울이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한숨을 푹푹 쉬다가 다람이한

테 도와 달라 소리치고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다가 마침내 자포자기 심정으로 팔을 깬다. 안쓰러워서 내가 곁에서 도와주니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엄마랑 까니까 팔 꺾질이 금방 수복해졌어. 혼자 할 때보다 힘도 덜 들고.", "그래, 원래 일은 같이 해야 더 쉽고 재밌어. 그나저나 너 발 저리겠다.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그동안 엄마가 하고 있을게.", "그럼 엄마도 쉬어. 나 혼자 쉬면 미안하잖아.", "엄만 괜찮다니까.", "아니야, 엄마 혼자 하면 힘들 텐데. 근데 엄마! 일을 같이 하니까 엄마랑 나랑 우정이 생긴 것 같지 않아?" 정말 그렇다. 우린 작업 지시자인 다울 아빠 뒷담화도 곁들여 가며 우정을 나누고 있다.

한낮에 감 따기 대작전이 펼쳐졌다. 다울 아빠가 감나무 위로 올라가서 감을 따고 다울이와 내가 나락망을 펼쳐 들고 감을 받는다. 그러면 다람이가 감을 수레에 담고, 다니는 곁에서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운다. 이게 전체 그림인데, 처음엔 순조롭지 않았다. ... 그런데 어느새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감이 떨어지고 감을 받고 감을 옮기기가 능수능란하고 매끄럽게 진행되는 거다. 심지어 우리들 예상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진 감까지 받아냈을 때는 다같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와아아~ 와하하하!", "우리 진짜 대단하다! 까요~~~"

그날 저녁 다울이가 만든 짧은 노래! <모두들 잘했어. 모두들 고마워. 모두들 사랑해>를 불렀다. ... 나는 어느새 나바호족의 노랫말에 곡조를 붙여 만든 <모든 것이 아름답다>라는 노래를 속으로 흥얼거리고 있다. 오늘도 아름다웠으니 내일도 아름답겠지!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덤. 올해 처음 혼자서(!) 완두콩을 심어 본 다울이의 말, "엄마, 농사일을 하면 사람이 착해질 수밖에 없겠다.", "왜?", "씨앗을 심을 때 부드럽게 대하게 되잖아. 흙도 부드럽게 덮어 주고. 그러니까 마음도 부드러워질 것 같아."

- 정청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중에서

푸르른 소멸.41

- 까치밥

박제영

첫눈이 내린 지 오래도록, 가지만 저리 흥흥하도록,
붉은 감 하나 까치밥으로 매달려 있어, 참으로 미련한
집착이구나, 오늘 그에 사라지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
어, 잎이 다 진 나무들 한 모양으로 잔가지 흔들리는
데, 어느 것이 감나무고 어느 것이 단풍나무인지 모르
겠는 것이야, 문득 내 안의 마지막 까치밥 하나는 무엇
이게 하는, 붉은 혼과 같은 까치밥 하나가 있기는 있는
것일까, 모를 일이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곽정자 권혁순 박혜경b김경혜 김근종 정옥영 김금순 김명하 오형일 김용길
 최영혜 김익한 김종문 김종성 김준호 곽혜자 김진혁 신다현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김현동 오유경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남명진 김애정 마재국
 손의나 문금석 박기원 이미영 박상욱 임서영 박석희 조항미 박옥순 박인혁
 고숙이 박재영 이현정 박재우 정충원 박영진 박준민 최광희 변재민 이소혜
 서이순 송형운 하미림 신문희 심상숙 안미숙 우경환 유경주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왕준 송상경 이용현 최연실 이은주 이정은 임당재 임찬양
 전영린 김행자 조관행 홍선희 조두희 오연훈 조문규 진정숙 조미선 조순덕
 조항범 오현정 최 숙 최윤희 최철수 곽권희 최 현 한상경 한선희 한성건
 정지혜 한완식 임정자 현 진 홍복선 홍춘숙

감사헌금

김반야 김영호 김 인 박안나 김인석 이선화 김일재 김중수 이순정 남윤경
 박재영 이현정 백묘현 오대권 이삼남 정용구 이상도 이유일 김미희 이은빈
 이은서 이은진 이하루 이시은 이민음 임종수 임채진 이영희 장도영 정구봉
 채일석 최병민 서지연 한훈식 권채영 황현성 이오복 무명3

녹색꿈헌금

김미란 김창숙 김은종 신바울

생일감사헌금

고다온 이지하 임찬양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선교회 :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2. 세례입교식 및 성탄 축하행사 : 다음 주일 오후 1:30 세례입교식 및 성탄 축하행사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3. 기부금 영수증 : 올해 현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12월 16일까지 재무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구글폼 <https://goo.gl/forms/YZVDTDKZOVV0moRx1> 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은 내년 1월에 합니다.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4. 전화번호 수정 :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1층 로비에 마련된 서식에 새로운 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천임원교육 : 중구용산지방에서 시행하는 2019년 신천임원교육이 23일 주일 오후4시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비는 25,000원입니다.
6. 신앙실천 : 대림절 초를 밝히고 기다림의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히 10:5-10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박범희	김정근

	1부 영접위원	안현숙	헌금위원	곽권희
12월	2부 영접위원	박홍재 이민범 최승주 박상규 서정순 정재기		
	2부 헌금위원	장원호 권미숙		

오늘 식당 봉사	권미숙 조경자 최옥자 최미자 최광희 박준민 이경준 김정우		
다음주식당봉사	신영신 김진경 최종미 박정숙 송인선 이해선 송동준 이재선		
오늘설거지봉사	6여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3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홍윤선

-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이나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